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국내 모든 지역 HPAI로부터 벗어나 8월 20일경 청정지역 지위 확보예정

지난 4월 1일 국내에 찾아온 고병원성시가 지난 5월 12일 양산지역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음에 따라 29일부로 모든 지역의 방역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양산지역에서 마지막 살처분이 이루어진 5월 21일 이후 3개월 뒤인 8월 20일 이후 우리나라는 청정지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발생한 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절과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중 상시방역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번 발생동안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검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행동지침 등 SOP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 상시체제를 가동함에 있어 사전 예찰 및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각 대학에서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하면서 H5형이 나타난 예가 있으며, 최초 발생된 산란계 농장도 3월 중순에 이미 오리농장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전 모니터링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리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로 병성감정 및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시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들을 사전 색출해 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했을 때 초기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시가 확대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전국에서 900만수라는 엄청난 가금류가 매몰되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3km내에 살처분 범위에 있더라도 지형적으로나 방역상황을 근거로 지역 '가축방역예찰협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살처분을 최소화했던 예를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살처분 범위에 있더라도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없거나 방역이 완벽하다고 판단되는 GPS농장이나 대형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특히, 축산과학원의 유전자원과 연산오계와 같은 천연기념물은 SOP에 예외조항을 반드시 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장주변에 소규모로 사육하는 닭에서 시가 발생함으로 해서 주변의 수십만 마리의 닭들이 매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농장으로부터 3km이내에서 사육되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킬 수 있는 조치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AI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단방역을 최우선시 해야만 한다. 언제든지 AI 예방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0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가 발생한 농장의 대부분은 발판소독조 조차 없는 방역이 허술한 곳이 많았다.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우선시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농장입구 차량소독조 및 고압분무기 등을 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등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AI 관련 SOP 개정에 있어 양계농가는 물론 관련 학계,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더 이상의 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감별분과위원회 역사의 한페이지로 '90년대까지 해외파견 등 왕성

본회는 지난 6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본회 규정에 있던 감별분과위원회가 협회를 중심으로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아래 규정에서 삭제시켰다. 이로써 지난 1965년 (사)한국초생추감별협회의 탄생으로 출발하여 40여년간 왕성한 활동을 해 오던 감별분과위원회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양계산업이 발전하고 사육수수가 증가하면서 감별업무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을 전후해서는 감별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마다 감별경진대회(감별사 시험)를 개최하여 을종 1등에는 농림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당시 감별업무가 양계산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감별사 양성을 위한 감별경진대회는 1993년 12월 감별사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감별사 배출은 마감이 되었다.

1993년까지 배출된 감별사만 해도 총 1,043명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며, 감별사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외화획득의 주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1990년 본지를 통해 외국에서 활동했던 감별사 현황을 보면 전세계 24개국에 총 263명이 파견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서독 23명, 캐나다 22명, 오스트리아 14명, 헝가리 11명, 영국 10명, 스페인 9명을 비롯해 터키, 노르웨이, 볼리비아, 스위스, 벨기에,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이란, 홍콩, 우르과이, 덴마크,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별사들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육종의 발달로 산란계의 경우 깃털만으로 감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육계도 실용계의 경우 감별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30여명의 감별사들이 원종계, 종계, 토종닭 종계, 일부 산란 실용계에 대해 감별을 하면서 국내·외를 다니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감별학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육종이 발달되더라도 감별업무는 존속될 것이지만 과거에 비해 활동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파업, 사료운송 중단사태 막아 본회 등 관련업계 즉각적인 대처노력이 큰 힘

지난달 13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곡물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농장에 사료가 공급되지 않아 가축들이 굶어죽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는 물론 사료협회, 정부의 노력으로 최악의 사태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지만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파업이 지난 19일 극적으로 타협되면서 정상화 되었지만 축산업계는 긴장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2007년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을 보면 1천6백14만8천 톤으로 우리나라는 이중 옥수수, 소맥 등 사료원료를 대부분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도 사료 원료 수입량은 옥수수 6백74만8천 톤, 대두박 1백7만4천 톤, 소맥 1백4만2천 톤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료업체수는 국내에 67개가 있으며 사료공장수는 94개소가 존재한다. 사료원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료공장은 물론 농가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며, 결국은 화물차량들의 수송물량 회수가 줄어들어 화물업계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전국에 사료곡물취급 항구는 인천, 군산, 평택, 부산, 울산 등 5개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사료공장에서 사료원료를 적게는 1~3일, 많게는 6~9일 정도의 재고량을 확보해 놓고 항구로부터 원료를 매일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경우 사료가 생산되지 못해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 1일 운행하는 사료곡물 수송 차량은 25톤 기준 550대로 하루에 3만4천 톤의 사료가 항구에서 사료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의 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은 “사료 운송중단 더 이상 방치해서는 소, 돼지, 닭이 굶을 판!”이라는 성명서를 화물연대에 전달하고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가축사료 및 곡물원료를 중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한 바 곡물에 한해서는 운송이 제한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시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소비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사료원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축을 굶기는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계**